

성과 종교교육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관점과 실제

김 승 남

대진대학교

<요 약>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워진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배우는 모든 지식과 규범이 항상 옳고 바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남녀불평등은 물론이고 사회의 모든 불평등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나타난다.

성차별은 사회 전체의 복지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비인간적이고 반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추세가 점점 일반화 되고 있다.

따라서 성의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남녀차별에 의한 성불평등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성평등에 대한 사상적 배경으로 성차별과 성 고정관념 등의 왜곡된 인식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여성성(性)에 대하여 대순사상의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원상생은 쌓였던 원(冤)을 풀고 상생(相生)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대순사상의 교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종지이다.

음양합덕은 ‘음양의 덕을 합한다’라는 뜻으로 이는 음양의 차별과 불균형으로 인해 그것이 지니고 있는 덕이 발현되지 못한 것으로 억음존양(抑陰尊陽), 남존여비(男尊女卑) 등으로 표현되며, 음양의 불균형적 폐해는 선천세계를 진멸지경에 처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는 증산의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억음존양, 남존여비 등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산(甞山)은 정음정양(正陰正陽)과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원리를 바탕으로 양성의 올바른 관계맺음에 대해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대순진리회, 양성평등, 성차별, 음양합덕, 해원상생, 정음정양, 대장부(大丈夫)

I. 서론

전통적으로 성(性)은 가능한 덮어두어야 할 금기의 대상으로 성에 관한 것은 무조건 부끄러운 것이며, 감추고 숨기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개방된 사회문화, 그리고 교육기회의 확대에 의식의 변화가 일고 있고 특히 여성들이 주체적 인간으로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가치규범과 더불어 성(性)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사회변화에 따라 남녀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 자신도 스스로를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관념에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남녀 간의 지위는 평등화 되고 그 역할은 동질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이론적인 남녀평등과 현실적인 상황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내재하여 교육제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회제도에서 외형적으로는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면서도 실제에 있어서의 사회적 태도나 가치관은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성(性)의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남녀차별에 의한 성(性)불평등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성(性) 인식과 그에 따른 성 교육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순진리회에서는 성 교육 또는 성에 관한 어떠한 언급(교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굳이 성을 주제로 한 사상적 근거를 찾는다면 양성평등, 특히 성차별과 성 고정관념 등의 왜곡된 인식으로 불평등을 격고 있는 여성성과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의 종지인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의 교의를 중심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살펴볼 수 있다.

II. 현실에서의 성 차별과 교육의 의미

1. 성 차별과 교육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워진다. 즉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부모로부터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하나 인간이 되는 법,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배우는 모든 지식과 규범이 항상 옳고 바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 이를테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 습득한 많은 지식과 규범들 가운데 특히 성교육에 있어서 그것들이 사실과는 거리가 멀고(왜곡된 지식) 도리어 어긋나는 경우(부당한 규범)가 많다. 예컨대 남자의 지적능력은 여성의 그것보다 뛰어나다든지 남자는 도덕적으로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든지 하는 생각은 오늘날 과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다. 물론 이 같이 왜곡된 지식과 부당한 규범은 사회구조와 교육제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문제는 더 커지고 복잡해진다.¹⁾

교육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남녀불평등의 사회구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회의 제 불평등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적 현상이기도 하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가치지향적 이어서 이를 대표하는 교육이념의 체계와 내용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는 사회구성원의 의식구조와 생활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를테면 교육이념이 비민주적이고 성차별적이면 이러한 이념을 주입받고 훈련받은 사람은 비민주적이고 성차별적인 사람이 되기 마련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문제시 하는 이유는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남성 지배구조는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믿음은 우리들 전체의 복지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필연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이와 함께 만민평등의 이념에 입각해서 성 불평등과 성차별은 비인간적이고 반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추세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이 같은 성 차별주의와 비민주적 운영 관행은 최근에 와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여성학계나 성 평등운동가들의 비판과 도전의 대상이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권위주의와 성 차별주의에 대한 여성계의 도전과 함께 기성세대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도전도 최근에 와서는 그것의 심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이 교육에 있어서의 민주화와 성 평등주의의 실현에 일조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같은 성차별적 현상과 전근대적 교육관행은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의 성불평등이 극복되지 않는 한 사회 전체에서의 성평등의 확보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이념은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서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의 가르침일 뿐 실제로는 이 같은 숭고한 이념과는 배치되는 성차별적 교육관행이 엄연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의 교육현실은 극복되어야 한다.

1) 김동일, 『성의 사회학』(서울: 문음사, 2000), 279쪽.

그리고 이 과제는 제일 먼저 교육자의 몫이다.

2. 전통적 여성관을 통해 본 성차별

유교가 우리나라에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였다. 불교와 더불어 한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념으로 작용하였던 유교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그 영향력을 점차 강화시켜 나갔고, 절정에 이른 것이 바로 조선시대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말(麗末)에 전래되었던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신홍 사대부 층의 정책에 일대강목으로 수용되어 예교문화(禮敎文化)를 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에 여성들은 국가의 교화정책에 힘입어 중국교훈서와 『내칙(內則)』, 『언문삼강행실도』 등을 교재로 유교적 부도(婦道)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조 초기에는 유교적 윤리관이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다만 신홍 사대부 층 부녀들에게 부분적으로 수용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교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화되지 못했던 유교적 여성관은 법제화를 통한 강제조치에 의해서 그 정착이 가속화된다. 이러한 강제조치의 한 예가 바로 성종8년에 제정된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²⁾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초기 여성관은 실천윤리 중심의 교화정책과 제도개혁론에 편승해 실천규범의 차원에서 형성되어 갔다. 즉 조선조 초기 중앙집권체제의 확립이라는 절대적인 명제와 관련하여 조선조 성리학(性理學)으로서의 이론적 심화(深化)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론과 실천규범이 분리된 채 제도적 측면만이 부각되었다.³⁾

유교적 여성관이란 유교적 사회체계를 성립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합당한 여성의 자세 내지 도리 및 가치관으로서, 남성을 극기(克己), 존귀(尊貴), 강건(強健)으로 규정하는데 반해 여성을 복종(僕從), 비천(卑賤), 유순(柔順)의 대칭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⁴⁾

이러한 남존여비(男尊女卑)적 성격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윤리규범으로 구현되어 조선조 가부장제적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부도(婦道)조건으로서 여성들의 사고와 행동을 강력하게 규제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가부장제적 사회체계가 정착하기 시작한 고대 국가에서부터 특히, 조선왕조 500년간 우리 민족의 의식과 생활을 지배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여성관의 기저를 형성하여 의식과 규범, 생활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⁵⁾

2) 재가녀의 자손은 대소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게 하여 관로(官路)에 금고(禁錮)하게 하는 것.

3) 한명숙, 『조선시대 유교적 여성관의 원리론적 고찰』(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23-24쪽.

4) 박용옥, 『유교적 여성관의 재조명』 『한국여성연구 1』(경기: 청하, 1988), 11쪽.

5) 박영애, 『조선시대 가부장제를 통해 본 여성의 사회적 지위』(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5쪽.

조선시대의 유교는 특히 여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조선시대 여성에 관한 유교적 봉건 폐습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⁶⁾

- ◇ 여성에게는 순종과 인내만이 강요되었다. 여필종부(女必從夫), 부창부수(夫唱婦隨), 삼종지도(三從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는 말에 그런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
- ◇ 남계(男系) 혈통 위주의 가족 관념에 의해 여성은 평등을 누리지 못했다.
- ◇ 혼인의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었다.
- ◇ 부(夫)가 처(妻)를 지배하고 차재(借財), 보증(保證) 행위, 소송 행위, 증여 등의 여러 행위를 부(夫)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행위 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로서 처(妻)를 규정했었다.
- ◇ 여성은 이혼 청구의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 ◇ 여성의 교육은 소수의 양반계급을 위한 것이었고 여성 교육은 가정교육에 국한되어 언문을 익히는 정도였다.
- ◇ 전통적인 한국 여성의 생활권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이었고 가정 내에서도 식사 준비, 육아, 바느질 등에 국한되었다. 가정문제에 있어서도 결정권이나 통솔권마저 갖지 못했다.

이처럼 여성에게 주어진 유교적 가족윤리에서 주요한 덕목으로 나타나는 것은 효(孝), 화합(和合)과 순종(順從)이며, 딸로서는 효(孝)를, 며느리로서는 집안의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아내로서는 남편에게 순종을, 어머니로서는 자녀교육을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다.⁷⁾

Ⅲ. 대순사상의 세계관과 양성평등의 이해

1. 대순사상의 선천(先天)인식에 관한 이해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관은 절대권능의 소유주로서 강세한 구천상제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구천상제는 구한말의 역사적 대 종교가로서 활동한 강증산 성사(1871~1909)를 지칭한다. 성사(聖師)는 곧 구천대원조화주신으로서 삼계대권을 주재하고 천하를 대순하다가 인세에 대강하여 상도(常道)를 잃은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 지상천국 건설을 위한 대공사를 행하신 것으로 신앙된다.⁸⁾ 이어서 오늘날 종단에서는 성사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寶貨天尊姜聖上帝)’로서 봉안하고 그 위격과 권능에 최고신으로서의 절대성을 부여한 것으로 신앙의

6) 부남철, 『현대사회와 유교적 가치관』 『전통과 현대』(서울: 전통과 현대사, 2002), 69-83쪽.

7) 이배용, 『유교적 전통과 변형속의 가족윤리와 여성의 지위』 『여성학논집』12(서울: 한국여성연구원, 1994), 36쪽.

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8쪽.

근간을 삼는다.

대순사상이란 곧 이 같은 구천상제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종단의 창설과 더불어 그 종지를 세우고 신계를 정하여 확립된 제반 교리의 이념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해될 수 있다.⁹⁾

대순사상에서의 현실세계 인식은 진멸지경에 처한 참혹한 세계이며 증산의 천지공사를 통하여 건설되는 후천선경은 종교적 이상세계가 된다. 이것은 증산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에 의하면 선천시대의 상극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고 모든 인사가 도의에 맞지 않아 원한을 파생시키고 이러한 원한이 삼계에 누적되어 현실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인과적 구조로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즉, 원한과 보복은 역사상에서 순환적 인과관계를 형성했고 그 결과 진정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극투쟁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인간이 원한을 품게 되는 원인은 반상의 구별, 적서의 차별, 남존여비, 빈부의 격차,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억압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타인이나 타 집단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경쟁의 결과이다. 이러한 경쟁은 욕망을 낳으며 욕망은 또 다른 경쟁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현실세계는 시기와 질투, 반목과 투쟁이 난무한 진멸지경의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다.¹⁰⁾

이처럼 사회적 긴장과 해체상황의 원인을 원한관계로 해석한 증산은 이러한 사회를 재통합시키기 위하여 모든 원한을 풀어 없애는 일이 가능할 때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며, 이러한 새 세상에서 비로소 인간 또한 완성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¹⁾

따라서 증산은 진정한 화평의 세계는 상호간의 갈등과 원한 발생의 해소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했던神明계(神明界)와 인간계(人間界)의 원한까지도 해소시키는 적극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²⁾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종교적 각성을 한 증산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때의 핵심개념이 바로 천지공사가 된다. 그의 천지공사에 의하여 다가올 후천선경은 정치적 안정과 만민평등이 이루어지는 인존의 시대이며 경제적 안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풍요의 세계이고 사회·문화·종교적 갈등이 해소된 통일의 시대이다.

한편, 증산은 이러한 개혁적인 종교 시정의 공사를 주재하면서 개혁의 시대에 행위의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¹³⁾

9) 대순종학교재연구회 편, 『대순사상의 이해』(경기: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56쪽.

10)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60쪽.

11) 윤기봉, 『종교적 이상세계와 도통진경』 『대순사상논총』5(경기: 대순사상학술원,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340쪽.

12) 『典經』, 공사 1-3 참조.

13) 『典經』, 교법 2-56.

율글에서 증산은 인간 개개인의 가치가 천지와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벽의 시대에 새 질서를 창조하고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고 이러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라고 주장한다.¹⁴⁾

또한 “선천에서는 모사(謀事)가 재인(才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才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謀事)는 재천(才天)하고 성사(成事)는 재인(才人)이니라”¹⁵⁾하여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하늘보다 인간 존엄성의 우위를 피력한다.

아울러 반상의 계급관계 내지는 남존여비와 같은 기존의 인습을 타파할 때 무시 받고 버려졌던 사람과 땅에 새로운 기운이 돌아 상생의 복된 세계가 도래할 것임을 예견했다.¹⁶⁾

한편, 오늘날 남녀불평등 현상은 앞서 살펴본 선천의 현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음양의 부조화라는 상황 하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음양의 불균형(不均衡)과 부조화(不調和)로 인해 합덕(合德)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한계상황(限界狀況)은 선천(先天)의 현실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선천에서의 음양 관계는 상극지리에 따라 양자가 억음존양(抑陰尊陽)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균등성(均等性)을 잃고 존재해 왔다. 따라서 음양 상호간의 불평등으로 인한 원과 척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선천세상이 상극의 원리로 지배되었다는 것은 음양의 원리가 상극적이었으며 이에 따른 만상만물의 시비로 많은 문제점이 선천에서 도출됐음을 알 수 있다.

천지공사는 기존 선천세상을 바로 잡아 이상세계인 후천선경을 건설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선천의 음양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후천선경건설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점은 예로부터 음양이 우주 만물을 이루는 근본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후천선경건설은 새로운 우주질서를 창출하는 것으로 음양의 원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산은 음양이 상극적으로 대비돼 불균형·불평등을 일으켰던 선천의 현실을 개벽해 음양 간의 올바르게 완전한 합덕을 이루어 후천선경을 이룩하고자 공사¹⁷⁾를 하게 된다.¹⁸⁾ 뿐만 아니라 증산은 삼상의 탓으로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¹⁹⁾ 이에 대한 공사도 행하게 된다.

후천선경은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인존시대이다. 이것은 경쟁의 원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자원의 균등한 분배라는 경제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니, 경제적 부의 획

14) 율기봉, 앞의 글, 341쪽

15) 『典經』, 교법 3-35.

16) 율기봉, 앞의 글, 342쪽.

17) 『典經』, 공사 2-16.

18) 고남식, 『전경에 나타난 음양합덕의 원리』 『대순사상논총』2(경기: 대순사상학술원,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7), 380-382쪽.

19) 『典經』, 공사 2-20.

득이 건전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경제적 정의가 구현되는 시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언어, 문화, 종교, 사상 등의 통일은 선천에서의 상극상을 바로잡아 현실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킴으로써 도통진경의 후천선경 세상은 진리로 통하는 완전한 이상세계가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순사상이 오늘날의 인류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의의는 그 동안 인류가 세계변화의 노정에서 품어왔던 본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증산의 천하대순과 삼계공사의 과정에서 비로소 제시되었다는 점과 그 결과, 인류의 미래가 ‘후천선경’이라고 하는 이상적 세계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다.²⁰⁾

2. 대순사상의 양성평등에 관한 새로운 인식

1) 음양합덕(陰陽合德)론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는 먼저 관념적 측면에서 전제되는 ‘음양이론(陰陽理論)’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여기서 음양론은 동양학의 전통에서 하나의 세계관의 전형을 이루는 것으로, 이 세계의 유기적(有機的) 구조를 ‘음(陰)’과 ‘양(陽)’이라는 대대적 관념으로서 설명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다.²¹⁾

이러한 관념은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관념과는 다르다. 서양은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선과 악을, 밝음과 어두움을 말한다면, 동양에서 말하는 음양의 대립관념(對立觀念)은 상호보완적(相互補完的)인 의미의 대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상극적(相剋的)인 입장을 중시하기보다는 상생적(相生的)인 측면을 강조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음양이론은 서양의 이원론(二元論)적인 입장이 아니라 동양의 일원론(一元論)적인 입장으로서 상호 영향 하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강조된다. 즉, 어느 하나를 억눌러야 그 다른 하나가 일어선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도움으로 서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음(陰)과 양(陽)은 확연하게 분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음(陰) 속에는 양(陽)이, 양(陽) 속에는 음(陰)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성이라 해도 완전히 남성적인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남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²²⁾

20) 윤재근, 앞의 글, 62쪽.

21) 대대관념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음양이며, 이 음양 대대적 구조를 기저로 하여 성립된 것이 『주역』의 사상체계이다. 대대관념은 『주역』에서 원초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최영진, 『역사상의 철학적 탐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33쪽.)

22) 윤기봉, 『음양합덕의 종교학적 이해』, 『대순사상논총』제2집, (경기: 대순사상학술원,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7), 328쪽.

『주역(周易)』 계사전에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하여 도(道)의 근원성이 일음(一陰)과 일양(一陽)의 대대적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때 음양사상은 상반응합(相反應合)하고 종시유착(終始癒着)하는 논리가 구비되어 있다고 보는데, 일음과 일양은 그러한 작용을 뜻하는 주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대적 관계에 있는 양자는 경우에 따라 상호 배척적이며,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대방을 부정할 수가 없다. 상대방의 부정은 곧 자신의 부정이기 때문이다.²³⁾

이처럼 음(陰)과 양(陽)의 관계는 서로 대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상호보완적이고 동등(同等)한 주체(主體)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산의 천지공사에 나타난 이념을 통해 확립된 일음일양(一陰一陽)과 정음정양(正陰正陽)이라는 동권(同權)의 관계는 상호 대등한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모두 음·양 각각의 정체성과 함께 그 관계성을 엿볼 수 있는 용어라 생각된다.²⁴⁾

이러한 음양의 관계에서 동등한 주체로서의 권리를 갖는 정음정양과 일음일양은 대순사상의 종지인 음양합덕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음양합덕은 ‘음양의 덕을 합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삼라만상의 올바른 균형과 조화작용을 통해 완성된 세계를 실현시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순사상 출현의 근원적 배경이 되는 선천의 현실은 음양의 분화를 통해 발달을 추구했던 시대였지만 음양의 부조화가 나타나면서 음양이 지니고 있는 균형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 음양이 지니고 있는 덕(德)을 실현시킬 수 없었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선천세계는 음양의 차별과 불균형으로 인해 그것이 지니고 있는 덕이 발현되지 못한 시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선천세계는 억음존양(抑陰尊陽)으로 표현되며, 음양의 불균형적 폐해는 선천세계를 진멸지경에 처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증산은 인간세계의 계층구조를 나약한 자와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를 음양으로 파악하면 선천세계는 음(陰)적 계층(나약한 계층)이 양(陽)적인 계층(강한 계층)으로부터 지배당해 왔던 세상이다. 그 결과 음에 해당되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양에 해당되는 계층에 대해 불만과 원한을 낳았고, 그러한 불만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증산은 음(陰)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것으로 나약한 계층,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여성의 상징인 음은 ‘음덕(陰德)’ 또는 ‘지덕(地德)’으로 묘사되어 그 가치와 역할이 지대함을 말하고 있다.²⁵⁾

23) 최영진, 앞의 글, 28-29쪽.

24) 『典經』, 공사 2-16 참조.

25) 이경원, 『대순사상과 여성-21세기 남녀평등의 새로운 모색』 『21세기 인류평화와 대순사상』 제2회 대순사상학술대회, 2000, 65-67쪽.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어야 하느니라.²⁶⁾
모든 일에 외면 수습을 버리고 음덕에 힘쓰라. 덕은 음덕이 크니라.²⁷⁾

윗글에서 음(陰) 또는 땅의 존재가 양(陽)이나 하늘에 대해 상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음은 양에 가려져서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陽)의 드러남만큼 그 음(陰)의 존재의의가 부각되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음과 양의 가치가 공히 발휘되어 일체로서 받들어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음의 가치가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은 “만사가 음에서 발생하여 양으로 펼쳐나가므로 먼저 음의 어두움을 살피고서 양의 밝음을 보게 되니 매사에 먼저 그 시발처를 살피야만 한다.”고 하는 시각에서 대두되는 것이다.²⁸⁾

그러므로 여성의 정체성을 이와 같은 음덕(陰德)이나 지덕(地德)에서 찾는다면 양덕(陽德)이나 천덕(天德)에 해당하는 남성에 비해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며,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가치를 지니고 남녀합(男女合)의 인간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자각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증산의 여성관은 실로 진보된 남녀평등사상이며, 또한 과부재가금지의 악습²⁹⁾을 혁파하고 제거하려는 데서 더욱 구체적인 사상적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³⁰⁾ 그에 따른 실천적 모색을 가능케 해준다.³¹⁾

따라서 음양합덕의 원리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주장한 원리로서 인간의 자유와 능력발휘를 억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오는 빈부격차, 남녀차별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성의 기운만을 승격시킨다면 여성상위시대를 만들어 남성들에게 원한이나 혐오감을 주며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지 않도록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덕성을 계발하여 평등을 이루도록 하였다.

...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 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³²⁾

26) 『典經』, 교법 1-62.

27) 『典經』, 교법 2-18.

28) 이경원, 앞의 글, 67쪽.

29) 과부재가의 금지법은 주자학을 신봉하는 조선왕조 유신들이 ‘열녀(烈女) 불갱이부(不更二夫)’라고 하는 유교 의리론을 현실사회에 강제로 실천화시킨 것으로 유교사회에서 열녀란, 군자를 인간의 이상적 목표로 하여 거기에 접근해가도록 끊임없이 수련 정진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유교적 여성관 형성의 한 방향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 목표인 열녀관을 마침내 위로는 사대부가의 부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래로는 천인 신분의 부녀까지도 생명보다 더 중시하고 여자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풍속으로 고착시켰으며, 이로 인한 여성의 고통을 실로 처참한 것이었다.

30) 박용옥, 앞의 책, 220쪽.

31) 『典經』, 2-17 참조.

중산은 여성들에게 단순히 원을 해소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여성의 덕성을 계발하고 경우 바른 행실과 성(誠) 경(敬) 신(信)의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³³⁾

그리고 무엇보다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다는 부분은 여성해방의 면모가 엿보인다. 결국 여성관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대순사상에서 하나의 보편적 인간의 문제로 귀결되며 올바른 여성이해는 올바른 인간이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됨을 시사한다 하겠다.

2) 정음정양(正陰正陽)론과 대장부(大丈夫)론

음양합덕의 교의에 있어서 개념적으로는 음과 양이 그 덕을 합한다고 해석되므로 여성의 정체성이 음덕(陰德)에 있다면 남성은 곧 양덕(陽德)의 정체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음덕과 양덕의 합(合)이 곧 세계의 이상적 경지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음·양은 각자의 역할과 가치를 지니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음과 양의 올바른 관계 맺음은 먼저 일음과 일양이라는 산술적 용어로서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나아가 이것이 음과 양의 대등한 만남으로 이어져서 합덕의 경지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시각에서 이해된다.³⁴⁾

일음일양(一陰一陽)은 정음정양(正陰正陽)이라는 표현과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음정양은 음과 양을 바로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³⁵⁾ 사실 정음정양의 가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일음일양의 원리가 선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우선 음(陰)과 양(陽)이 정음정양(正陰正陽)의 개념에서 바름이라고 하는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데서 그 바름(正)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름’의 뜻에는 대표적으로 ‘불편부당(不偏不黨)’, ‘정직(正直)’, ‘정도(正道)’, ‘단정(端正)’, ‘마땅함(當)’, ‘정위(正位)’ 등을 들 수 있다.³⁶⁾

이러한 바름의 의미와 관련하여 양성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절을 『전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내가 이제 아침에 객망리 주막 앞을 지날 때에 한 소부가 길가의 풀에 내린 이슬을 떨며 지나가기에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소부가 천정의 부음을 듣고 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그 뒤를

32) 『典經』, 공사 1-32.

33) 김순자, 「대순진리회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 『한국종교교육학 연구』제4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189쪽.

34) 이경원, 앞의 논문, p.71

35) 김정태, 「대순진리의 종지에 관한 이해」 『대순사상논총』제2집, (경기: 대순사상학술원,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7), 476쪽.

36) 伍華, 『주역대사전』, 중산대학출판사, 1993, 93-94쪽 참조.

한 노구가 지팡이를 짚고 가며 소부의 자취를 묻는 도다. 내가 그 연유를 따져 물었더니 그 노구가 「앞에 간 소부는 나의 며느리이나 가운이 불행하여 어제 밤에 자식을 잃었는데 며느리가 장사를 치르기 전에 오늘 새벽에 도망갔나이다. 며느리는 저희끼리 좋아서 정한 작배이니라고 대답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인연이요 저희끼리 작배한 것은 천연이라. 천연을 무시하여 인도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벽력으로써 응징하였노라」고 하셨도다. 그 며느리는 벽력에 죽었노라고 전하는도다.³⁷⁾

윗글에서 증산이 혼인의 종류를 크게 천연(天緣)과 인연(人緣) 두 가지로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짝지어준 것을 인연이라 했고 스스로 작배한 것은 천연이라고 했다.³⁸⁾

남녀간의 만남에 ‘천연(天緣)’이라고 하는 도덕적 근거를 전제한다면 상호간의 윤리에 있어서는 ‘인도(人道)’로서의 당위적 실천이 요구된다. 곧 정음과 정양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진정한 합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인 남녀 관계에서 그 윤리적 실천을 논한다면 상대에게 극단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을 것, 스스로 정직(正直)하고 정도(正道)를 행할 것,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할 것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³⁹⁾

이는 “한마음을 정한 바엔 이익(利益)과 손해(損害)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便僻)과 의지(依支)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⁴⁰⁾는 믿음(信)에 대한 언급을 남녀관계에 적용하여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도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증산은 선천의 음양의 불균형으로 인해 음과 양이 각각 이루지 못한 바름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상호 관계에 있어 위치와 역할의 구별이 존재하지만 불평등의 관계가 유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증산은 남녀 상호간의 관계성에 주목함으로써 각각의 위치와 역할이 존중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⁴¹⁾ 즉 어느 한쪽에서만 책임과 의무, 그리고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서로 화합하고 조화될 수 있는 관계성에 주목하라는 교훈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상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후천에 펼쳐질 바름의 세계는, 인간의 삶이 어느 한 곳에 과중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양자가 동등하게 가치를 가지며, 그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벗어나 있던 위치에서 제 자리로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성과 여성이 상생하게 되는 계기인 것이다.⁴²⁾

37) 『典經』, 행록 3-36.

38) 박용옥, 앞의 책, 228쪽.

39) 이경원, 앞의 글, 73쪽.

40) 『대순진리회요람』, 17쪽.

41) 『典經』, 행록 4-7 참조.

42) 유승중, 『해원상생에 내포된 사상적 특성』 『대순사상논총』 제4집, (경기: 대순사상학술원,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318쪽.

한편 대순사상에서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관점은 여성문제를 인간문제로 귀결시킴으로써 자칫 엄연히 상존하는 여성차별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⁴³⁾ 오히려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자각을 일깨우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변혁의 의지를 견지한 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적 여성상이 드러나야만 한다. 그리하여 구체적 현실 속에서 하나의 대사회적 실천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여성관의 올바른 정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순사상에서의 음덕론이 본질적 측면에서 다른 여성관이었다면 이와 같은 실천적 측면에서는 ‘대장부론(大丈婦論)’이 주요하게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인 용어에서 알려진 ‘대장부(大丈夫)’는 주로 가부장적 전통 하에서 남성의 권위와 체면을 상징하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지아비’로서의 부성(父性)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지어미로서의 ‘모성(母性)’이 강조되어 ‘대장부(大丈婦)’라는 용어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다.⁴⁴⁾

상제께서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라 써서 불사르셨도다.⁴⁵⁾

윗글에서 대장부의 모습은 기존의 ‘남자 장부(大丈夫)’를 말함이 아니라 그 반대인 ‘여자 장부(女丈婦)’⁴⁶⁾를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다. 인간의 모습에서 지아비가 있다면 지어미가 있고, 이처럼 둘의 관계는 또다시 짝 개념 혹은 각각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볼 때, 후천개벽을 음(陰)개벽이라 부르고, 후천개벽에선 음이 주장이 되어 조화, 통일, 상생, 화해가 바탕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선천 시대가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수천 년 동안 억눌려 온 시대라고 본다면, 후천개벽의 시대는 모권(母權)의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모권은 역사적 형태로서의 여성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여성이 남성 우위에 서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

43) 여성학자 메리 델리는 여성차별의 문제를 외면하는 몇 가지 유형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이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trivialize) 것과 둘째 특수화(particularize)시키는 것, 셋째, 정신화(spiritualize)시키는 것, 넷째 보편화(universalize)시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보편화의 문제는 주로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말로서 확실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 명제가 성차별을 외면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에는 분명히 옳지 않은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Mary Daly, The Women's Movement; An Exodus Community; Elizabeth Clark & Herbert Richardson, eds, Women and Religion(haper&Row, 1977)p.265, 황필호 외,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 동국대출판부, 1986, p.71, 재인용, 이경원, 대순사상과 여성-21세기 남녀평등의 새로운 이념모색, 2000, p.67, 재인용)

44) 이경원, 앞의 글, 67-68쪽.

45) 『典經』, 교법 2-57

46) 『典經』, 권지 1-17 참조.

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음세상이란 상생이 주장이 되고, 상생이 바탕이 되고, 상생이 핵심이 되는 고른 음양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가부장제 대신 즉자적인 원시적 모권제의 형태가 부활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⁴⁷⁾

이는 앞서 나타난 ‘대장부(大丈婦)’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도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한 세기 전 증산은 이에 대한 예견과 함께 대대적인 전우주적 구조개편인 천지공사로서 앞으로 펼쳐질 남녀평등의 이념을 사실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대순사상의 양성평등과 가치실현

1. 상생적 관계로서의 양성평등 이해

대순사상에서 인간 존재는 ‘선령신들이 육십 평생, 헤아릴 수 없는 공을 쌓아서 하늘로부터 얻어낸 존재’⁴⁸⁾가 된다. 그래서 인간은 최소한 선령신(先靈神), 다시 말해 천계(天界)-神明계(神明界)와의 유기적(有機的)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체(關係體)이며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單獨者)가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전체구조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존재가 곧 인간 존재와 직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는 신(神)의 표상인 동시에 만물을 조화하고 그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⁴⁹⁾

이처럼 증산은 천·지·인 삼계의 이법에 따라서 생(生)을 영위하는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인간상이 곧 ‘인존(人尊)’이라고 하는 이상적 인간 관념인 것이다. 천·지·인 삼계(三界)의 유기적 통찰에 의한 인존의 시각은 ‘이상세계의 건설’이라는 지향점과 그 실현의 주체로서의 가능성이 무한 적절하다고 하는 인간관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상세계라고 하는 목표 자체도 독자적 실체가 아닌 복합적, 전체적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⁵⁰⁾

또한 ‘인존(人尊)’은 인간이 천·지·인 삼계의 우주적 관점에서 이해될 때 그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증산의 새로운 인간 철학은 인간의 의식자체를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⁵¹⁾

47) 김지하 외, 『미륵사상과 민중사상』(서울: 한진출판사, 1988), 24쪽.

48) 『典經』, 교법 2-36 참조.

49) 윤재근, 앞의 글, 63쪽.

50) 김학택, 『종지론에 나타난 인간관 연구』 『대순사상논총』 제6집(경기: 대순사상학술원,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543-544쪽.

51) 윤재근은 그의 논문에서 오늘날의 인간관은 인간을 ‘사람’으로만 한정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보고 본질적 자아의 각성적 측면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교육의 많은 문제점을 낳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따라서 대순사상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각적 개체’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종교전통이나 서양철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간이해⁵²⁾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남녀의 조화와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대순사상에 있어서 남녀간의 윤리적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용어를 찾는다면 ‘상생(相生)’이라는 개념이 적합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상생’이란 ‘상극(相剋)’의 반대 용어로서 ‘상호극해(相互極害)’의 관계가 아닌 ‘상호생성(相互生成)’의 관계를 뜻한다.

대순사상에서의 상생⁵³⁾은 동양의 오행관계에서 비롯된 생태중심의 윤리학으로부터神明계(神明界)를 포함한 종교적 영역으로까지 승화된 이 세계의 지배원리로써 일컬어진다.⁵⁴⁾

증산의 공사에서 선천은 상극적 역의 구조이며, 후천은 상생적 역의 원리로 우주의 조

조상들의 인간을 분리된 개체로 이해하지 않는 고유한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모든 것을 분화 내지는 분석적으로 이해하려는 서구문화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인간의 개념으로 홍익인간을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서는 인간교육이 곧 사람만을 존중하는 교육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민주교육인 것처럼 해석되어 왔고 그 결과 인간교육은 오히려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교육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윤재근, 앞의 글, 62-63쪽 참조.

- 52) 문제는, 여성은 정서적인 반면 남성은 이성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결합함으로써 일어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관념은 지배적이다.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활동’을 담당함으로써 여성은 자연을 연상시키는 존재 그리고 양육활동에서 보이는 자녀와의 애착, 가족간의 사랑 등의 감정적 유대를 중요시하는 여성은 본래적으로 정서적인 존재라는 등식을 성립시킨다고 본 것이다. 남성은 합리적 이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자연과는 구별되며, 이성에 의해 자연을 파악하고 제어하고 지배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자연적 존재와는 구별되는 사회적 존재이다. 반면 자연적인 존재일 뿐인 여성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대신 아이를 낳아 기르며 가족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장만하는 소위 ‘생물적인 활동’이 주된 가정 안에 그 활동이 제한된다. 이런 이성 중심적 인간관은 이성적(합리적) 남성이 자연적(비합리적)인 여성을 지배하고 여성은 남성의 조종에 복종함으로써 인류의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관념에 확고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허라금, 『여성적인 도덕관점과 바람직한 인류 공동체』, 『여성과 철학』(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16-17쪽 참조.) 그리고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역사적 종교들은 성숙의 이분법적 틀을 갖는다. 성숙이원론 또한 영육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즉 영육이원론에서 정신 즉 영은 순수하고 고귀한 것이며 물질 즉 육은 저열한 것이다. 육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대표적인 예가 기독교의 죄의 관념이며 그 죄는 여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불교의 공사상은 비교적 성차별과 성숙의 차별을 넘어서 개념이기는 하나 출가 위주의 승단 조직이 승과 속을 구분함으로써 불교적 성숙의 이분법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서구 기독교 전통의 여성혐오론이나 동양의 유교나 힌두교의 여성 비하의 전통도 여성을 육체적 존재로만 간주하면서 역사적으로 내면화 시켜온 것이다.(하정남, 『한국 신종교의 남녀평등사상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47-149쪽 참조.)

- 53) 자전적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생(生)은 1. 살다(죽음의 반대) 2. 살리다(살다의 타동사) 3. 낳다(산모가 출산한다) 4. 나다(아이가 나다) 5. 태우다(삼신이 아이를 태어준다, 아이가 태어난다) 6. 비롯하다(생起) 7. 일으키다 8. 되게 하다(조생) 9. 만들다(作)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生)의 이러한 뜻을 토대로 상생의 의미를 정의 내리면 서로 ‘살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생은 사람 사이의 관계로만 한정지어 사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전체적 삶이 함께 조화되면서 살아가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54) 김학택, 『해원상생의 윤리적 의미』 『국제 중국철학회』 제10차 국제학술회의, 1997, 참조.

판(鑒判)이 형성되어 있다. 선천에서도 상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생이라도 상극적 구조 속의 상생이므로 제한적 상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증산에 의해 상생의 의미는 해원공사를 통하여 선천의 제한된 범위를 없앴 후천의 상생으로 발전하는 것이다.⁵⁵⁾

이처럼 대순사상에서의 상생은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가 원한을 풀어 모두 잘 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오행(五行)의 다섯 가지 요소가 일방적인 관계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주고받고 생(生)하는 관계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만약 인간이 관계론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되어 진다면 남녀 각각의 주체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주체적인 의지는 있으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녀평등의 현실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의 유기적인 활동성이 나타났을 때 남녀평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순사상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언

각 종교 단체는 그 종교가 뜻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율과 윤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종교에서 계율은 종교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규범으로 모두가 신앙의 대상이 정(定)한 종교적인 법률이며 꼭 지켜야만 하는 신법(神法)이다. 따라서 계율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의 대상을 지극히 섬기는 것이 되고 또한 기원자가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계율은 지켜야 할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러므로 행위를 규범(規範)하게 된다.

이에 대순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교적 규범으로서 실천 수행해야 할 훈회와 수칙을 살펴보면, 훈회는 첫째, 마음을 속이지 말라. 둘째, 언덕을 잘 가지라. 셋째, 척을 짓지 말라. 넷째,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다섯째, 남을 잘 되게 하라. 수칙은 첫째, 국법을 준수하며 사회도덕을 준행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하여야 함. 둘째, 삼강오륜은 음양합덕 만유조화 차제도덕의 근원이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부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며, 존장을 경례로써 섬기고, 수하를 애휼지도 하고, 친우간에 신의로써 할 것. 셋째, 무자기는 도인의 옥조니, 양심을 속임과 흑세무민하는 언행과 비리괴려를 엄금함. 넷째, 언동으로써 남의 척을 짓지 말며 후의로써 남의 호감을 얻을 것이요, 남이 나의 덕을 모를 때의치 말 것. 다섯째, 일상 자신을 반성하여 과부족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나갈 것. 이상 각각의 다섯 가지가 있으며, 이를 『대순지침』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훈회를 실천하여 생활화하여야 한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신뢰할 것이고, 언덕(言德)을 잘 가지므로 화목할 것이며, 척(慼)을 짓지 않는 데서 시비가 끊어질 것이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데서 배은망덕이 없을 것이며,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 이

55) 이재호, 「증산 강일순의 해원상생사상 연구」(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42쪽.

것이 우리 도의 인존사상이며 바로 평화사상인 것이다.」 또한 수칙을 실천하여 생활화 하며, 진실되게 준행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수도의 목적 달성에 전념하여야 한다. 이상에서처럼 훈화와 수칙은 해원상생의 실천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원상생의 이념에 바탕하여 종단차원의 양성평등의 가치실현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한다면, 첫째, 종단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인간이해와 양성평등에 대하여 교리적인 해석을 통한 학문적, 교화적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사업에서 종단의 이념에 입각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과정에서 인간의 이해, 종교와 성(性), 그리고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학교에서는 대진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종교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진대학교의 경우도 대순사상의 이해라는 교양필수 과목을 통해 대순사상의 성립배경과 사상적 측면을 주로 교육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담당 교수마다 수업 내용이 상이(相異)하다.

이러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종단의 과제는 대순진리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차별의 문제와 그 심각성을 알리고 더불어 양성평등을 이루어가는데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V. 결 론

대순사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성, 특히 양성(兩性)의 관계에 관한 시각은 증산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천지공사와 해원이념을 위주로 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표명하고 있다.

증산의 선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천지공사(天地公事)’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변혁의 구도를 확립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세계변화의 흐름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류가 바라는 이상세계를 구천상제의 권능으로 새로 지어서 안겨준다는 것으로 공사의 대의(大義)를 밝히고 있다.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양성에 대한 이해는 먼저 관념적 측면에서 전제되는 음양이론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증산은 양-남, 음-여로 유비되는 관계가 오히려 양성불평등으로 나타남을 지적하고, 음덕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양성(性)의 올바른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특정한 한 성(性) 즉 남성 또는 여성의 한쪽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음양으로 이루어진 상대적 진리의 세계에 대한 인간 보편의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음덕에 대한 가치는 양(陽)에 가려져 잠식되고 가치 절하되는 것이 아니라 음과 양의 가치가 공히 같이 발휘되어 서로 받들어지게 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음덕과 양덕의 합이 곧 세계의 이상적 경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의 원리가 일음일양(一陰一陽)과 정음정양(正陰正陽)으로 나타나며, 남녀의 올바른 관계맺음에 대해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시킬 변혁의 계기는 천지공사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음양공사(陰陽公事)와 대장부공사(大丈夫公事)로서 명명될 수 있겠다.

음양공사와 대장부공사는 앞서 살펴본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한 것으로 구조의 개편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의 발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순사상의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세계를 통한 인간이해와 상생적인 관계로서의 인간이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유기적 관계 안에서 인간은 구조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다면 상생적 관계로서의 인간은 실천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기도 하지만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만약 인간이 관계론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되어진다면 남녀 각각의 주체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주체적인 의지는 있으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녀평등이념의 현실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의 유기적인 활동성이 나타났을 때 남녀평등이념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제까지 다룬 내용들은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었다. 사실 종교의 역할은 도덕적·윤리적 이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천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양성평등을 위한 실천적 문제는 앞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전경』
- 고남식, 「전경에 나타난 음양합덕의 원리」 『대순사상논총』 제2집, 경기: 대순사상학술원,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7.
- 김동일, 『성의 사회학』, 서울: 문음사, 2000.
- 김순자, 「대순진리회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 『한국종교교육학 연구』 제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 김정태, 「대순진리의 종지에 관한 이해」 『대순사상논총』 제2집, 경기: 대순사상학술원,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7.
- 김지하 외, 『미륵사상과 민중사상』, 서울: 한진 출판사, 1988.
- 김학택, 「해원상생의 윤리적 의미」 『국제중국철학회』 제10차 국제학술회의, 1997.
- 김학택, 「종지론에 나타난 인간관 연구」 『대순사상논총』 제6집, 경기: 대순사상학술원,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 대순종학교재연구회 편, 『대순사상의 이해』, 경기: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 박영애, 「조선시대 가부장제를 통해 본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박용옥, 「유교적 여성관의 재조명」 『한국여성연구』 1, 경기: 청하, 1988.
- 부남철, 「현대사회와 유교적 가치관」 『전통과 현대』, 서울: 전통과 현대사, 2002.
- 伍華, 『주역대사전』, 중산대학출판사, 1993.
- 유승중, 「해원상생에 내포된 사상적 특성」 『대순사상논총』 제4집, 경기: 대순사상학술원,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 윤기봉, 「음양합덕의 종교학적 이해」 『대순사상논총』 제2집, 경기: 대순사상학술원,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7.
- 윤기봉, 「종교적 이상세계와 도통진경」 『대순사상논총』 제5집, 경기: 대순사상학술원,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경원, 「대순사상과 여성-21세기 남녀평등의 새로운 모색」 『21세기 인류평화와 대순사상』 제2회 대순사상학술대회, 2000.
- 이배용, 「유교적 전통과 변형속의 가족윤리와 여성의 지위」 『여성학논집』 12, 서울: 한국여성연구원, 1994.
- 이재호, 「중산 강일순의 해원상생사상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최영진, 「역사상의 철학적 탐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하정남, 「한국 신흥종교의 남녀평등사상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한명숙, 「조선시대 유교적 여성관의 원리론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원고접수일: 2013년 6월 7일 심사일: 6월 19일 게재확정일: 7월 5일

연구자소개 : 김승남(金承男)

- ① 전공 : 한국신종교(대순종학) / 소속 : 대진대학교 교양과
 - ② 관심영역:한국신종교, 종교교육, 종교문화
 - ③ 주요논저: 〈대순사상의 해원과 인존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의 인간관 연구〉, 〈대순사상의 실천 수행 일고찰—훈회와 수칙을 중심으로-〉, 〈대순사상의 종지론 일고찰〉
 - ④ E-mail : kimeureka@naver.com
-

Abstract

A Perspective of DaesoonJinrihoe on Gender and Religious Education, and Its Practicality

Kim, Seungnam

Daejin University

Education has been said to make ‘us’ human beings. But, one big problem in maintaining this maxim in reality is that not all knowledge or norms learned are right and impeccable. It is especially true for ‘the sex discrimination in education’ which leads to sexual inequality and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inciting all other sexually unequal social environments.

Sexual discrimination has been long considered as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that hinder development and well-being of society. And recently it has been argued against more generally as something very in-human and non-ethical.

Therefore, it is necessitated for us to do “gender-equality education” consistently in order to help people to well-understand the right concept of “sexes” and ultimately to solve the sexual inequality caused by sexual discrimination on a reasonable and efficient basis.

This paper explores a new interpretation about gender equality centered on the Daesoon thoughts of EumYanghapdeok and Haewonsangsaeng that daesoonjinrihoe ideological background on gender equality, such as gender stereotypes and gender discrimination of inequality that you’re having a female gender(性) in distorted recognition.

Haewonsangsaeng is Jongji(宗旨) of the most significant proportion in the doctrine of daesoon thoughts, includes that release the accumulated won(冤) and sangsaeng(相生).

Eumyanghapdeok means that add yin(陰) and yang(陽) of the virtues, the virtue could not be expressed it, due to the yin and yang of discrimination and imbalances, representative as Eokeumjonyang (抑陰尊陽), Namjonyeobi(男尊女卑), etc., which is based on the Jeungsan of perception of reality are represented as yin and yang of the disproportionate evil influence to put you on the verge of a world utterly destroyed that the main causef.

So a way of overcome the evils infulence Eokeumjonyang, Namjonyeobi, etc., Jeungshan (甌山) is presented it based on the principle Jeongumjeongyang(正陰正陽) and IleumIlyang (一陰一陽), rules identity about both sexes of a proper relationship and present a new understanding.

Key words : Daesoonjinrihoe, Gender Equality, Sexual Discrimination, Eumyanghapdeok(陰陽合德). Jeongumjeongyang(正陰正陽), Daejangbu(大丈夫).